



## 교양교육센터, 재학생 간담회 개최

### 2025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 교양교육센터가 지난 4월 8일, 호천관 11층 회의실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황현석 교육혁신본부장, 김기영 교양교육센터장, 권정미 교양교육센터 계장을 비롯해 오성진 총학생회장, 김동건 남부총학생회장, 김준엽 복지부장이 참석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는 '2025학년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로 시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전체 교육 만족도는 69.8점으로 2024학년도 대비 1.7점 상승하며 우리 대학의 본원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현장실습' 만족도가 7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현·실습'의 만족도 또한 69.5점으로 2.2점이라는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대학이 추진해 온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 개선 노력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공 교육과정 만족도 역시 70점대를 진입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교양 교육 분야 만족도 또한 68.4점으로 2024학년도 대비 2.1점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의평가 계획서 내 교육목표 및 평가 방법의 명확한 제시' 항목이 6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재상 및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68.9점), '교양 교과목 직업기초능력 도움'(68.7점), '서일 핵심 역량에 맞는 교양 교과목 개설'(68.1점) 등의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평



▲ 재학생 간담회 현장

가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명확히 드러났다.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양 과목의 '다양성 부족'과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학생은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강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체능이나 인문학 등 기초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과목 신설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부 과목이 대학 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기초적인 내용만 다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운영 측면에서는 동일 과목임에도 분반에 따른 교수법 및 시험 난이도가 달라 발생하는 성적 형평성 문제, 인기 비대면 강의의 수강

신청 어려움 및 영상 재사용 문제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교양교육센터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양 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진단했다. 최근 신설된 ▲AI 리터러시 ▲드론 기술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등에 대한 만족도 점검과 함께 향후 신설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원 배분 방안과 교수법 개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학점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동건 남부총학생회장은 "대부분의 교양 과목이 2학점으로 고정되어 있어, 3학점 위주인 전공과목과 시간표를 조합했을 때 졸업 학점을 맞추기가 매우 번거롭다"라며 교양 과목 학점의 다양화를 건의했다. 또한 오성진 총학생회장은 "교양 과목 이수 학점의 제한이 완화된다면 학생들의 전공 및 교양 과목

수강 선택권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학 본부 측은 "학과와 전공 계열마다 학생들의 니즈가 다르기에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의견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202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굿네컴퍼니**

마케팅 직무 핵심 역량 가이드

굿네컴퍼니 인턴이 되어보어 보겠는가

마케팅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대외활동  
비영리 마케팅, 마케팅 주요 과업 및 핵심 열감, 개별미션 참여

모집 기한 : 2026년 4월 7일 (화) ~ 5월 25일 (월)

**내 용**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대외활동

**접수기간**  
2026. 04. 07. (화) ~ 2026. 05. 25. (월) 23:59

**대 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신청방법**  
<https://forms.cloud.microsoft/r/1XsjLaAPJt> 폼 신청

**문 의**  
ejkim1@gni.kr / 031-8061-7036 이메일 혹은 전화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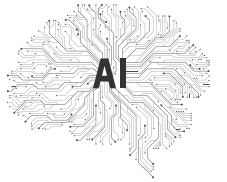
**주요사항**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Contents |                       |
|----------|-----------------------|
| 1 면      | 교양교육센터, 재학생 간담회 개최    |
| 2 면      | 우리 대학 미디어출판학과 차세대 리더  |
| 3 면      | 4명 발탁                 |
| 4 면      | 3) 카페인의 양면성           |
| 5 면      | 학생들의 데이트 평균 횟수는?      |
| 6 면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장 '서민재' |
| 7 면      | 비즈니스중국어과 학회장 '신민석'    |
| 8 면      | 인터뷰                   |

**알 려 드 립 니 다**

- 5월 13일(수) ~ 15일(금): 제52회 용마체육대회 기간
- 5월 17일(일): 일반 휴학 신청 기간 종료





# 우리 대학 미디어출판학과 차세대 리더 4명 발탁

##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수혜로 우수성 입증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지난 3월 19일 '2025 출판문화진흥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제1기 미디어출판인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수여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두 행사를 한자리에서 치른 것은 연구 성과의 격려와 미래 인재의 발굴이 출판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하나의 흐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뜻 깊은 기획이다.

특히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수여식에서는 우리 대학 미디어출판학과 학생들이 대한민국 출판계를 이끌어갈 든든한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재단은 우리 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해 2026학년도 미디어출판학과 학사학위과정 진학 대상자 중 학업 성취도가 높고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의 ▲김연아 ▲김지현 ▲임주는 ▲홍채민 학생이 차세대 예비 출판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이사장 명의의 선발 증서와 함께 각각 50만 원의 전문인력양성 지원금이 전달됐다. 이는 우리 대학 미디어출판학과와의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이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입증된 값진 성과이다.

이와 함께 진행된 연구논문 공모전에서는 출판 산업의 핵심 현안을 분석한 논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총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AI 수용 ▲플랫폼 재편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요 의제들이 깊이 있게 조명됐다. 대상을 차지한 한국외대 교수팀의 연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출판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을 리더십과 조직문화



▲ 연구논문 시상 및 예비 미디어출판인 지원금 수여식

차원에서 규명했다.

생성형 AI가 출판 현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현실 속에서 종사자들의 수용 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한양대 박사수료생의 논문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웹3.0 기술을 출판 유통 구조에 적용해 투명한 수익 분배 생태계를 설계한 협성대 교수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장려상에는 ▲신구대 교수팀(웹툰 독서 생태계 연구) ▲북경대 박사(중국 시장 수용 메커니즘 분석) ▲공주대 강사(이탈리아 출판사 웹페이지 사용자 경험 분석)의 논문 등이 선정됐다. 이러한 학술적 조명은 출판 산업 재편의 방향을 선취하는 문제의식으로 읽히며 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철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산업은 좋은 콘텐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연구, 변화를 읽는 통찰,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지원금을 받는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출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든든한 주역이다"라고 수상자와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출판 산업이 이중의 전환 앞에서 있는 지금, 학술적 성찰과 인재 양성을 연결하려는 재단의 시도는 기초 체력을 기르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대학 예비 출판인들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출판 산업의 빛나는 도약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 기획보도 1

## 우리 대학 간호학과,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 우리 대학 전경

우리 대학 간호학과가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시험에서 졸업생 전지현 학생이 295점 만점에 289점(평균 98.0점)을 기록해 전국 최고 점수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대학 간호학과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그는 재학 기간 성실한 학업 태도와 꾸준한 자기관리로 동료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학업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전지현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국가고시 대비 특강과 체계적인 모의고사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진의 세심한 맞춤형 지도가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방양희 학과장은 "이번 성과가 학생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매년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며 전문 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학과의 교육 역량과 대외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한 간호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정 기자 najung071107@gmail.com

### 기획보도 2

## 우리 대학, 예비근로자 역량 강화 기본 과정 운영

우리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일자리 플러스 본부는 진로 설계부터 취업 준비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상담, 직무 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2026 예비근로자를 위한 역량 강화 기본 과정 현장

이러한 지원의 하나로 우리 대학은 '2026 예비 근로자를 위한 역량 강화 기본 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예비 직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 ▲기초노동법 ▲근로 시간과 임금 등 총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직 노동자의 직접 강의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근로 기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올바른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고 노동 권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실제 취업 이후의 근로 환경을 고려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 지식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 심층보도



# 카페인의 양면성

## 카페인의 숨겨진 비밀

카페인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각성 물질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섭취 시 불면과 의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본 기사는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와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고, 올바른 섭취 기준과 생활 속 관리 필요성을 짚어본다.

카페인은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된 대표적인 각성 물질로, 현대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집중력 향상과 피로 해소를 위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험 기간이나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카페인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처럼 카페인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섭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카페인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지구력과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면증 ▲불안감 ▲신경과민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 커피를 마셔도 결국 피로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

등이 있으며,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는데, 이는 다음 날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지속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신체가 점차 이에 적응하게 되며, 같은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내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카페인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

### 시리즈 순서

- 1) 카페인의 일상화
- 2) 카페인 섭취 실태
- 3) 카페인의 양면성
- 4) 카페인 소비를 만드는 구조



무기력감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음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와 기관에서는 카페인 함량 표시를 강화하거나 섭취 주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카페인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준다.

카페인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집중력 향상과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물질이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존성과 내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카페인의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과 신체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인을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 학생의 목소리

##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날씨도 제법 더워지고 있는데요,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모두 몸 조심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보내는 사람: 익명

###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되었네요! 5월 하면 청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노래 추천합니다!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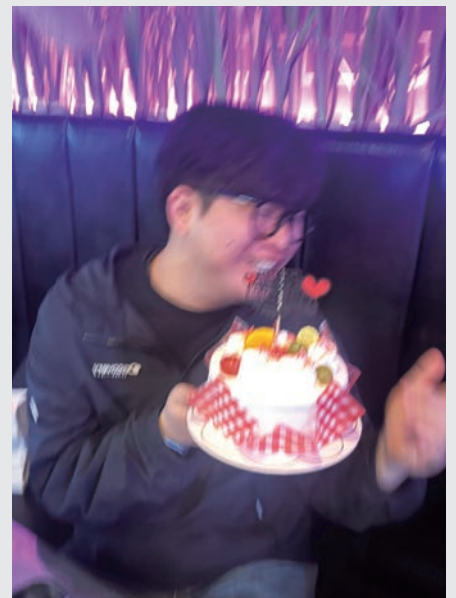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학생 INTERVIEW

## 편의점 꿀조합 추천

제가 소개할 메뉴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오투기 컵피자, 그리고 슈넬 치킨의 조합입니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라면 익숙하시겠지만, 저만의 '킷'은 바로 슈넬치킨입니다. 살짝 매콤한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그 매운맛을 완화해 줄 컵피자를 섞어서 크게 한입 넣으면, 이 자극적인 맛들이 제 미각을 즐겁게 혼란시킵니다. 어느 정도 입안에 여유가 생겼다면 슈넬치킨을 곁들여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마지막으로 펍시 제로 콜라(라임맛)로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 부동산법률학과 22학번 오지훈



## 지역사회



# 중랑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일상 스트레스 가장 낮아

##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직접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5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체감도 4.55점을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의 평균 스트레스 체감도가 전년 대비 0.27점 상승한 것과 달리, 중랑구는 오히려 0.45점이나 감소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는 탄탄한 지역 공동체 활동과 높은 소속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랑구는 '지역사회 소속감' 부문에서 서울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웃 간의 원활한 소통, 상호 부조 문화, 지역 행사 참여도 등 공동체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특히 구민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살피는 '중랑 동행 사랑넷' 프로그램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체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에 꾸준히 힘써 왔다. 지난 2018년 이후 동 주민센터 5곳을 복지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복합청사로 새로 단장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또한 ▲중랑실내놀이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중랑청



▲ 지난해 열린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참여한 주민들

년청 ▲화랑 마을 시니어센터 등 세대별 전용 공간을 확충해 전 연령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매년 개최되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비롯해 구민체육대회, 중랑 위킹데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역시 주민 간 화합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지표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랑구는 전국 걷기 실천율 1위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공동체 중심의 정책이 결합해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셈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 구민들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직접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신영 기자 ppeu4616@gmail.com

## 서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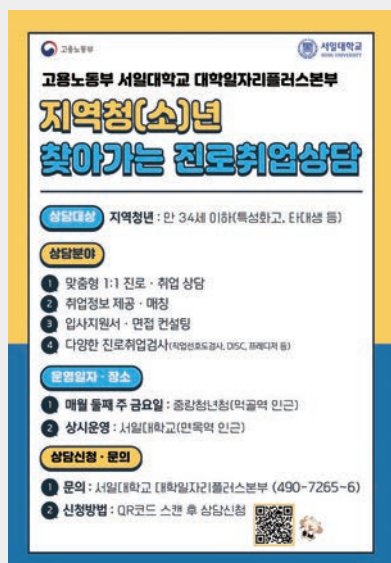
## 우리 대학 · 중랑구 지역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총력

우리 대학과 중랑구가 지역 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진로 정착을 돕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실전 취업 준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상

담 과정에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직업 선호도검사 ▲DISC ▲프레지저 검사 등 전문 진단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본인의 적성과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 상담사가 입사 지원서 작성법과 면접 전략 컨설팅을 세밀하게 지도하며, 개별 목표에 부합하는 취업 정보 매칭부터 일자리 연결까지 지원해 구직 성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및 상시 상담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먹골역 인근 중랑청년청에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며, 우리 대학 내에서는 상시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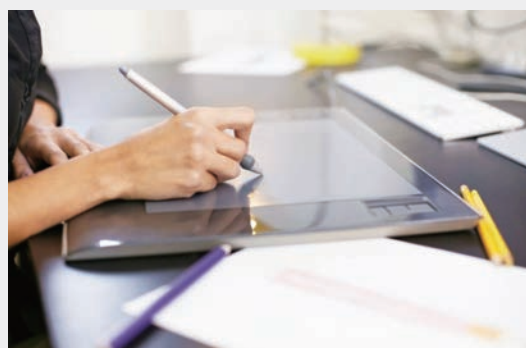


▲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포스터

최용열 기자 dydfuf123@gmail.com

## 학과 STORY

## 만화웹툰학과 세계로 나아가는 웹툰 전문가 양성



▲ 만화웹툰학과 홈페이지

우리 대학 만화웹툰학과는 K-웹툰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창의적인 세계관을 설계하는 스토리텔링 역량과 이를 시각화하는 디지털 제작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초이론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 웹툰 산업 진출에 필요한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포토샵 ▲유니티 등의 전문 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디지털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드로잉의 기초와 캐릭터 설계, 서사

구조의 원리를 학습하며 창작의 토대를 다진 뒤, 콘티 작법부터 디지털 채색, 배경 제작 등 웹툰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전문가 특강 및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만

화웹툰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중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컬러리스트 등 디지털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만화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웹툰에이전시 ▲애니메이터 ▲문화예술교육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예비 창작자들에게 만화웹툰학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등용문이 될 것이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 사설

##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 교양교육센터가 지난 4월 8일 '재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학년도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황현석 교육혁신본부장, 김기영 교양교육센터장을 비롯해 오성진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2025학년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전체 교육 만족도는 69.8점으로 2024학년도 대비 1.7점 상승하며 본원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정의 성과로 '현장실습' 만족도가 7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실습' 만족도 또한 2.2점이라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교양 교육 분야 역시 전년 대비 2.1점 상승한 68.4점을 기록했다.

성과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명확히 드러났다. 학생들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강의와 예체능·인문학 등 기초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과목 신설을 요구했다. 운영 측면에서는 분반에 따른 성적 형평성 문제와 비대면 강의의 영상 재사용 문제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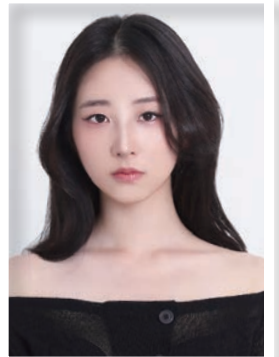
교양교육센터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양 교육 현황을 자세히 진단했다. 최근 신설된 ▲AI 리터러시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인기 과목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인원 배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학점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도 제기되었다. 김동건 남부총학생회장은 "교양 과목이 2학점으로 고정되어 전공과 시간표를 조할 때 졸업 학점을 맞추기가 번거롭다"라며 학점 다양화를 건의했다. 오성진 총학생회장 역시 "이수 학점 제한이 완화된다면 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우리 대학 본부 측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자칼럼

## 우리는 왜 영화보다 숏츠를 더 잘 기억하나?

보도부 기자 박서은



우리는 긴 영화보다 짧은 숏츠 영상을 더 쉽게 기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두 시간에 걸쳐 전개되는 서사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30초 남짓한 숏츠의 한 장면이나 한 문장은 오히려 또렷하게 남는다. 단순히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다.

숏츠는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붙잡기 위해 감정과 메시지를 극도로 압축한다. 강렬한 표정, 직관적인 상황, 반복되는 음악은 짧은 순간에 인상을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영화는 인물과 사건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서사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깊은 몰입을 경험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개별 장면의 선명도는 희미해지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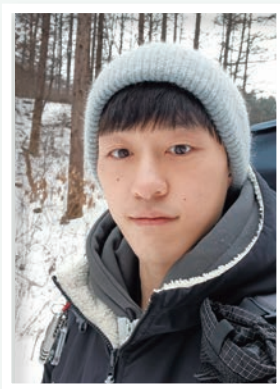
또한 숏츠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짧으므로 우리는 빠르게 이해하고, 빈 부분을 스스로 채우며 의미를 완성한다. 이 능동적인 해석 과정은 기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반대로 영화는 친절하게 맥락을 제공하는 만큼, 관객이 개입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 나아가 숏츠는 반복 소비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다.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더라도 부담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강화된다. 반면 영화는 한 번의 관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 반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소비 방식의 차이 역시 기억의 선명도를 가르는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숏츠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공급은 정서적 몰입을 극대화하여 잔상을 남기고, 기억의 휘발을 늦춘다. 반면 영화는 독자적인 예술적 호흡을 지니기에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심리적 방식 자체가 다르다.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와 인지의 참여도다. 숏츠는 짧지만 강하게 남고, 영화는 깊게 스며든다. 우리는 지금, 길게 기억되는 이야기보다 강하게 각인되는 순간을 더 자주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학생칼럼

## 당신이 배운 경제학은 틀렸다

스마트경영학과 송원석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이라 하지만, 사실 인간은 그리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합리적인 소비만을 하지는 않는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보다 눈앞의 감성, 충동, 편리함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쏟는다. 지난 30년의 소비 내역과 무의미하게 보낸 30시간을 되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고물가, 고환율,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합리적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신호다. 본인이 유난히 소비를 많이 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곳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신과 똑같은 소비성향을 가진 시장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 행동론에서 등장하는 페르소나 기법을 보면 가상 인물의 성향을 상세히 기술한다. 당신의 소비 내역으로 페르소나를 작성해 보면 짙은 성향이 묻어나는 명확한 소비자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간의 소비 심리를 이성적으로 분석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비이성적 측면에 주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당신이 무심코 넘겼던 비합리적 소비를 되짚어보고 정리한다면, 돈이 되는 니치 마켓(틈새 시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시대는 가장 비합리적이었던 소비가, 역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다.

## 서일만평





## 사회문화

## 서울시, 4~10월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

유해 남조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



▲ 녹조 현상 대비를 위한 점검 모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기후변화로 잦아진 녹조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친수활동구간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강화 운영한다.

조류경보제는 유해 남조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연구원은 ▲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채수 지점에서 매주 남조류 세포수와 용존산소 등 11개 수질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조류독소는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이나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연구원은 첨단 장비(LC-MS/MS)를 활용해 총 6종의 조류독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조류경보제 운영 기간 진행되는 모든 수질검사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 서울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성 연구원장은 "체계적인 조류경보제 운영과 과학적인 조류독소 분석으로 안전한 한강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신영 기자 ppeu4616@gmail.com

## 경제

## 서울 휘발유 2,000원대 진입 전망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 공급가 상한을 높인 결과



▲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 서울의 한 주유소

정부가 지난 3월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고시한 가운데, 시행 사흘째인 29일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경유 역시 1,891.55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2,000원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번 유가 급등은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휘발유 공급가 상한을 리터당 1,934원으로 높인 결과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후 전체 주유소의 약 35%인 3,674개소가 가격을 즉각 인상했으며, 이 중 1,366개소는 60원 이상 대폭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가 있음에도 판매가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행위가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폭리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국제청년센터 본부  
청년운영단 모집

모집 지역 수도권

신청 기간 5월 20일까지

혜택 인턴증 또는 수료증 발급

신청 방법 포스터 QR 스캔 후 신청서 제출

선발 방법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면접으로 최종 선발

신청서  
QR 코드

국제청년센터 Since 2010

| 내 용 | 국제청년의 나눔과 교류를 위한  
국제 NGO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단원 모집

| 접수기간 | 2026. 03. 30.(월) ~ 2026. 05. 20.(수)

| 대 상 | 수도권 거주 대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https://forms.gle/daXa5v3ET5ChwyaQ6> 폼 신청

| 주요사항 | 월 1회 대면 회의(참여 필수)

| 문 의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국제청년센터



## 특집 1



# 학생들의 데이트 평균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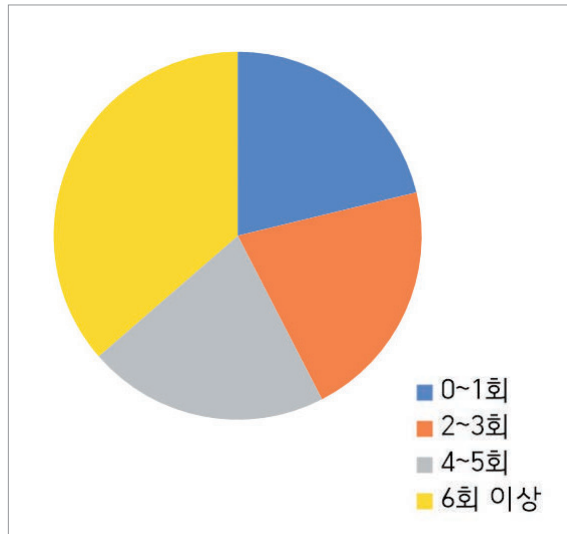
‘4~5회’가 약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애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한 달 간 평균 데이트 횟수’에 대한 답변으로 ‘4~5회’가 약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0~1회’, ‘2~3회’, ‘6회 이상’이 각각 약 21%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한 기준이 존재하기 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관계의 형태에 따라 데이트 빈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반된 연애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교적 자주 만나는 유형과 최소한의 만남을 유지하는 유형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은 오늘날 대학생의 연애가 하나의 패턴으로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업,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연애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자의 생활 리듬에 맞춘 유연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장소에 대한 응답은 학생들의 데이트 양상을 드러냈다. ‘카페’가 약 36%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집’이 약 29%, ‘술집’이 약 2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타 장소들은 약 7%의 낮은 비율을 보이며 데이트 장소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카페가 여전히 주요 데이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접근성과 편안한 분위기, 대화 중심의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한편 ‘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외부 활동 중심의 데이트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데이트의 핵심이 ‘어디를 가느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트 횟수와 장소를 함께 고려하면, 현대 대학생



▲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한 달 간 평균 데이트 횟수'에 대한 답변

연애의 특징은 선택적 집중의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대신, 한 번의 만남에서 얻는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려는 태도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의 변화도 연애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신저와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실제 대면으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오히려 오프라인 만남은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되며,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계획되고 선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데이트의 횟수 증가보다 질적 만족을 중시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 외에 현실적인 경제 요건 또한 변화를 부추긴다. 외식, 카페 이용, 문화생활 등 데이트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 부담이 적은 집 데이트나 간단한 만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편안함과 친밀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설문은 제한된 규모이지만, 대학생 연애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더 이상 연애는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자의 생활 조건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어떤 경험과 의미를 만들어가느냐다. 연애는 점점 더 개인화된 선택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연애 문화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임을 예고하며, 관계의 형태 또한 끊임없이 재정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삶의 균형과 가치관이 연애 방식에 얼마나 깊이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 특집 2

## 너도나도 동아리 자랑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다!



우리 대학이 지난 4월 재학생의 비교과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아리 박람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연 ▲체육 ▲봉사 ▲종교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참여해 각자의 활동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행사 현장에 마련된 동아리 부스를 방문해 운영 방식과 주요 활동 내용, 모집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동아리는 간단한 게임이나 체험 행사를 통해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했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동아리 박람회

공연 동아리들은 음악과 무대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형성했고, 체육 동아리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봉사 동아리는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으며, 종교 및 취미 동아리 역시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일부 동아리는 포스터와

홍보 자료를 활용해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바로 가입 신청을 받거나 추후 모집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정보를 비교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은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리 박람회는 다양한 동아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더욱 쉽게 비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사 현장에서 진행된 체험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업 외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 인터뷰 1

## 디자인으로 꿈을 펼치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장 서민재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장 서민재입니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을 기반으로 ▲그래픽디자인 ▲UX/UI ▲웹·앱 디자인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배우는 실무 중심 학과입니다. 기초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같은 기본 조형 교육부터 브랜드 및 광고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과 같은 프로젝트 수업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후에는 ▲그래픽디자이너 ▲UX/UI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입생 환영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소통 중심으로 운영했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장 서민재

여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된 간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참가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디자인의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디자이너로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단순히 디자인 기술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나정 기자 nejung071107@gmail.com

## 인터뷰 2

## 언어를 넘어 문화로, 중국어과의 기록

### 비즈니스중국어과 학회장 신민석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중국어과 학생회장 신민석입니다.

#### 비즈니스중국어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는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기초부터, 비즈니스 용어, 일반 중국어 회화 등을 교육하며 성장해 나가는 학과입니다. 현재 중국은 4차산업혁명에서 AI 분야와 배터리, 드론 등 현대 과학기술에 대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학과의 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 동계방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개강총회와 MT 사전 답사를 준비하며 신입생들이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학교생활을 돕고 학과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비즈니스중국어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 비즈니스중국어과 학회장 신민석

####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 차이나타운 현장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어 기초와 비즈니스 용어를 바탕으로 현지 중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력을 체감하고, 회화를 통해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현대 중국 문화와 일상 표현을 익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즈니스중국어과에 여태 재임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신 교수님들, 조교님들, 중국어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보다 더 나은 학과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닿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더 재밌고 나은 프로그램들로 중국어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학회장에게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며 학과 발전과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서는 기자 jssu090918@gmail.com